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주영 · 강경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Effect of Clothing Coloration and Type of Pants/Skirt on Impression Formation

Ju-young Moon ·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2. 8.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othing coloring and type of pants/skirt as clothing cues on impression of college female student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 Thirty two color pictures of various combinations of colors for shirt, and colors and type of pants/skirt were manipulated on computer drawing. For visual evaluation of women's casual wears about colors and type, 7-point scales were designed. The subjects consist of 192 female and 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Chinju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As analyzing the impression of female figure by the color of shirt and the color and type of pants/skirt, five factors including appearance valuation, concentration of attention, clearness, stability, and activity were found to be important. Color of shir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ppearance valuation, concentration of attention, clearness, stability, and activity. Color of pants and shirt als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ll five factors. Especially, they strongest predictors for stability and activity. Type of pants/skirt significantly effects on concentration of attention and activity. In the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each variable, the combination of pants colors and type of pants/skirt had significant effects on appearance valuation, stability factors. Also shirt and pants colors had an significant effects on appearance valuation, stability, and activity. But in the impression formation of concentration of attention and clearness, only the combination of shirt colors and pants forms was more significant.

Key words: impression formation, shirt color, color of pants/skirt, type of pants/skirt; 인상형성,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

I. 서 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게 된다. 동일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연령, 성별, 성격, 과거의 경험, 교육 등에 따라 자극을 지각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게 된다.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색

이나 재질, 무늬 등의 디자인 요소로 이루어진 의복 단서들은 의복 착용자의 연령, 얼굴 등의 외모나 상황과 함께 정보가 되므로 타인에 대한 인상 평가는 아주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대인 지각은 지각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Asch(1946)는 이러한 낯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강혜원(1999)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관련 요인을 의복유형, 의복스타일, 색채 등으로 보았고 특히 색채는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복에서 가장 표현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색채는 매우 감각적인 요인으로 감정을 자극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색에서 받는 인상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복의 색이나 색상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 및 인상형성의 효과를 다룬 연구(고애란, 1990; 남미우, 1990; 이주현, 강혜원, 1995)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의복스타일을 한복이나 정장에만 한정시키고 의복의 상·하배색을 동색 또는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캐주얼이나 포멀한 의복의 상·하 배색에서는 유채색간은 물론이고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배색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대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많이 착용하는 캐주얼웨어를 선정하여 상의형태는 셔츠로 통제하고 하의형태는 팬츠와 스커트로 변화를 준 후 상의는 유채색과 무채색, 하의는 무채색으로 하여 이들 단서들의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의형태와 상·하의색상조합에 의한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캐주얼웨어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착용자의 인상차원

인상형성이란 다른 사람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특징을 찾아내어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Asch의 형태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된다. 형태주의적 접근에서 인상이란 지각대상자가 지닌 특성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 형태(gestalt)라고 가정하였다. 즉,

특성들 중 어떤 것이 중심특질(central trait)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며, 주변 특질들은 중심특질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이인자, 2001).

Sears(이인자, 송선옥, 1982)에 의해 나타나는 인상차원을 대체로 평가, 능력, 활동의 세 가지 기본차원으로 밝히고 石塚純子, 加藤雪枝, 檜山藤子(1987)는 형태와 색채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성, 기능성, 경량감, 따뜻함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성 인자에는 형태, 색상, 톤이, 기능성의 인자에는 주로 형태, 경량감 인자에는 형태와 톤, 따뜻한 인자에는 색상이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渡辺藤子, 川本榮子, 中川早苗(1991)는 현대 여대생이 복장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복장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복장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자는 캐주얼, 눈에 띄는, 세탁성, 경제성, 새로움의 5인자로 추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캐주얼 인자에는 하의의 형, 상의의 색상과 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1995(a), 1995(b))은 수트, 드레스, 팬츠·블라우스를 중심으로 의복 착용자가 관찰자에게 주는 인상차원을 연구한 결과 전반적 인상에서는 능력-활동성, 품위,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깔끔함 등의 5개 차원이 도출되었고, 팬츠·블라우스 착용자에서는 평가-외모, 품위,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부드러움, 적극성의 6개 차원이 도출되었다. 이혜숙(1998(a), 1998(b))은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한 결과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은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강혜원, 고애란(1991)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에서 한복의 배색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평가·품위, 사치성·개성, 현대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현화(1997(a))는 한복의 색상, 색상 조화와 구조를 단서로 인상을 연구한 결과 의복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은 선호·평가 요인, 개성·주의집중 요인, 젊음 요인, 친화 요인이었다.

2.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단서

색채는 의복에서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색은 의복 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로 색상에 의해 착용자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빨강색은 흥분, 열정, 자극적이고 격렬하여 감정을 고조시키지만 불안, 긴장을 증가시키는 색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도 한다(고애란 1990; Birren, 1989). 유경숙(1996)도 색 이미지 평가 연구에서 빨강은 강한, 따뜻한,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다른 색에 비해 빨강은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다고 하였다. 강한 빨강색은 감정색과도 잘 조화되는데 감정색은 빨강색과는 달리 엄격함, 소극적, 어두움,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감정색을 첨단 이미지, 패션 비즈니스, 더구나 형식적 이미지 추구에 사용하기도 하여 젊은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희정, 1997:11; 오희선, 박화순, 1994:142).

이명희(1998)는 재킷색에 따른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지각자는 빨강 재킷을 능력 있고 젊게 보았고, 흰색, 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은 능력이 없고 젊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평가요인에서도 빨강색 재킷은 흰색이나 회색 재킷을 착용했을 때 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되었다. 빨강색 재킷과 흰색 재킷을 착용한 경우 비교적 여성적으로 지각되었고 회색과 검정색 재킷은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빨강이 매력있다고 한 이혜숙(1998(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각자의 성별은 젊음 요인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남자는 여자보다 동일한 대상자를 더 젊게 지각하였다. 이혜숙(1998(a), 1998(b))은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한 결과 빨강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노랑은 현시적이나 부정적 평가 이미지를, 녹색은 매력없는 이미지를 주며, 상하배색은 상하동색보다 현시적인 이미지로, 상하동색은 상하배색 보다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색조합에 의한 이미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복착용자의 상하배색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치마색보다 저고리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식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얼굴이 중요한 변인으로 저고리가 얼굴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면적은 치마보다 작으나 이미지에는 좀 더 중요한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이현화(1997(a), 1998(b))의 연구에서 의복단서들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는 색상조화가 중심특질이 되어 다른 주변특질(구조, 치마색상)보다 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영향에서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단서에 의한 영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의복단서(치

마색상, 색상조화, 치마색상)중 치마색상에 의한 영향이 인상 요인에 민감하게 나타났다.

차미승(1992)은 의복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서 의복색은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에서 의복형태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활동성과 편안성은 색채보다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빨강 옷은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인상을 주고, 무채색 옷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유채색 옷이 무채색보다 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Gibbins(1981)는 스커트 길이와 폭, 티셔츠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스커트 길이가 외향성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류숙희(2000)는 4종류 무채색으로 된 5종류 의복형태(H, A, V, X, O-Line)를 제시하여 색채에 의한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의 색채는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회색, 검정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연구자에 따라서 사용된 의복 스타일이나 색상 등의 변수들이 다르므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색은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주얼웨어의 셔츠색을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하의색을 무채색으로 할 경우 상·하의 색의 조합에 따라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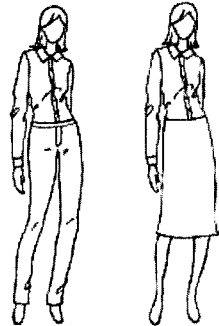
<연구문제 1> 하의형태 및 상·하의색상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하의형태, 상·하의 색상, 지각자 성별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실험절차 및 방법

1) 자극물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여대생들이 많이 착용하는 캐주얼웨어 차림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은 상의는 셔츠로 통제하고 하의형태에는 변화를 주어 팬츠와 스커트로 한 후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 그림 자극물

서적과 패션 잡지에서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스타일을 추출하였다. 조사 계절과 대상을 고려하여 선정된 디자인을 선 그림으로 그린 후 평가집단(교수, 대학원생)에게 셔츠-팬츠와 셔츠-스커트의 자극물 중 각각 한가지씩을 선택하게 하여 총 2가지 스타일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팬츠의 경우는 신체에 맞도록 하고 스커트의 경우 길이는 무릎 아래 10 cm로 하고 세미타이트 스커트가 되도록 하였다. 이 때 여성 의복 착용자의 얼굴과 헤어스타일, 자세 등은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과 같다.

자극물의 색상은 하의색을 상의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채도와 명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자극물이 너무 많아 조사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의형태인 팬츠와 스커트의 색상을 흰색과 검정으로 통제하고 셔츠의 색상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난색과 한색으로 구분한 분류 기준(이은영, 1995)에 근거하여 셔츠는 유채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하의와 동색인 무채색 즉 흰색과 검정색을 상의색상에 포함시켜 모두 8가지 색상으로 하였다. 또한 유채색은 순색인 비비드 톤으로 고정시키고 무채색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하여 상·하의 배색을 유채색과 무채색 무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되게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상·하의의 색상은 한국표준색표집(1991)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8가지색이 선정되었다. 이 때 바탕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독립변인인 상의색상(8: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흰색, 검정), 하의색상(2: 흰색,

검정), 하의형태(2: 팬츠, 스커트), 지각자의 성별을 포함하여 4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subject) 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8×2×2)에 의해 조합된 총 32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무선배치 되었다.

3)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은 선정된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Gerber社)에서 scanning하여 컴퓨터에 스타일을 입력시킨 다음 스커트와 팬츠의 색을 각각 흰색과 검정으로 하였고, 셔츠 색은 유채색과 무채색 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흰색, 검정색이 되도록 하였다. 이들 색상을 셔츠-팬츠, 셔츠-스커트에 각각 배색되도록 조합한 후 프린트하였다. 프린트된 자극물의 색상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색상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 것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색상의 면셀값은 <표 1>과 같다. 최종 자극물은 상의색상(8)과 하의색상(2) 그리고 하의형태(2)를 조합하여 만든 총 32(8×2×2)개의 실험 배색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자극물의 조합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색상	VIC
빨강(Red)	5R	4.5/14
주황(Orange)	5YR	5.5/13.5
노랑(Yellow)	5Y	8/14
초록(Green)	5G	5/9
파랑(Blue)	5B	4.5/10
보라(Purple)	5P	4/12
흰색(White)	N9	9/-
검정(Black)	N2	2/-

<표 2> 의복 자극물의 조합분류

하의상의	팬츠(P)		스커트(S)	
	흰색(W)	검정(B)	흰색(W)	검정(B)
빨강(R)	PWR	PBR	SWR	SBR
주황(O)	PWO	PBO	SWO	SBO
노랑(Y)	PWY	PBY	SWY	SBY
초록(G)	PWG	PBG	SWG	SBG
파랑(L)	PWL	PBL	SWL	SBL
보라(U)	PWU	PBU	SWU	SBU
흰색(H)	PWH	PBH	SWH	SBH
검정(K)	PWK	PBK	SWK	SBK

(셔츠 색상-R: Red, O: Orange, Y: Yellow, G: Green, L: Blue, U: Purple, H: White, K: Black)

4)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강혜원, 1991; 남미우, 1996; 이주현, 1990, 1995(a), 1995(b)) 등을 참고한 형용사 35쌍과 예비 조사에서 캐주얼웨어 및 하의형태, 색상조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13쌍 추가하여 총 48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인상평가 어휘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8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총 36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남·여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6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지각자의 성별,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에 따라 캐주얼웨어 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요인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각 인상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가 각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고 보조적 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상·하의색상 및 하의형태에 의한 인상차원 구조분석

하의형태와 상·하의 색상에 변화를 준 3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36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미분척도로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아이겐 값이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묶이어서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은 외모평가, 주의

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36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 = .90$ 으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2, .89, .87, .84, .69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7.3%로 5개의 요인 중에서 백분율이 가장 높고 중요한 요인으로 났으며, 보기 좋은-보기 싫은, 멋있는-멋없는, 세련된-촌스러운, 자연스러운-어색한 등이 포함된 9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의복색채, 팬츠 길이, 칼라유형의 디자인 요소를 의복단서로 사용하여 팬츠·블라우스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연구한 이주현(1995(a))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외모의 매력과 평가적 인상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평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에 대해 22.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상·하 배색을 다룬 본 연구의 결과가 단색들을 사용한 선행연구(이주현, 1998(a))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사용된 단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강렬한-무난한, 눈에 잘 띄는-평범한, 부드러운-딱딱한 등 11개의 형용사쌍들이 도출되어 주의집중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9%의 설명력을 가지며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차분한-들뜬, 산뜻한-칙칙한 등 6개의 형용사쌍들이 함께 도출되어 깔끔함이라 하였다. 요인 4는 4.4%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점잖은-발랄한, 즐거운-우울한, 안정된-불안정한 등 6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안정성 요인이라 하였고 요인 5는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3.0%로 활력을 주는-가라앉게 하는, 동적인-정적인 4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평가 요인에서는 멋있고 세련되고 어려 보이고 고상하고 신중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집중성 요인에서는 강렬하며 눈에 잘 띄고 청순하고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화려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깔끔함 요인에서는 깔끔하고 차분하고 산뜻하고 매력 있고 시원한 것으로 안정성 요인에서는 점잖고 즐겁고 안정된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력을 주고, 유행에 앞서고 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전체 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외모평가 요인과 주의집중성 요인은 공통 변량의 78.9%를 나타내어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에 따른 캐주얼한 의복 착용자의 인상

<표 3>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차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 ²)
보기 좋은-보기 싫은	.849	.165	-.008	.190	.116	.798
멋있는-멋없는	.840	.153	.175	.167	.047	.790
세련된-촌스러운	.838	.190	.138	.154	.032	.783
자연스러운-어색한	.822	.233	-.111	.104	.160	.779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802	.236	.027	.182	.113	.746
입고 싶은-입고 싶지 않은	.799	.134	-.060	.105	.130	.689
고상한-아한	.586	.153	.407	.380	.012	.678
신중함-경박함	.467	-.006	.394	.379	.084	.525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462	.159	-.201	.362	.283	.491
강렬한-무난한	.066	.727	-.249	-.188	-.156	.656
눈에 잘 띄는-평범한	.200	.662	-.426	.062	.120	.679
부드러운-딱딱한	.011	.658	-.060	-.400	-.082	.604
정숙함-정숙하지 않은	.184	.651	.161	.148	-.325	.612
침수함-요염함	.208	.638	-.420	.068	-.022	.633
적극적인-소극적인	.200	.634	-.402	-.037	-.090	.614
대담함-소심함	.211	.575	-.176	-.127	.143	.444
밝은-어두운	.435	.569	-.225	.029	.045	.568
화려함-수수함	.279	.564	-.010	.272	.229	.523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427	.511	-.234	.211	.123	.559
따뜻함-차가운	.147	.491	-.387	.070	.364	.551
깔끔함-깔끔하지 않은	-.004	-.198	.809	.074	-.087	.707
차분함-들뜬	.078	-.140	.775	.201	.212	.713
성숙함-귀여운	.115	-.202	.768	.189	-.048	.682
산뜻함-칙칙함	-.030	-.155	.717	.252	.242	.661
매력 있는-매력 없는	.014	-.195	.709	-.016	.131	.558
시원함-답답함	.057	-.328	.482	.333	.174	.485
집중-발랄함	.173	-.030	.296	.717	.135	.651
즐거움-우울함	.231	.011	.082	.677	.091	.528
안정됨-불안정한	.372	.078	.127	.608	.357	.659
선명한-흐린	.201	-.144	.259	.600	.401	.649
자제력 있는-충동적인	.266	-.217	.360	.573	.286	.658
중후함-경쾌함	.425	.385	-.085	.550	-.000	.639
활력을 주는-가라앉게 하는	.095	.100	.231	.150	.724	.620
친숙함-친숙하지 않은	.090	-.082	.265	.455	.619	.676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진	.175	.448	-.017	.233	.564	.605
동적인-정적인	-.243	-.252	.045	.166	.562	.469
고유치	9.848	8.002	2.155	1.597	1.094	22.696
전체 변량의 %	27.3	22.2	5.9	4.4	3.0	62.8
공통 변량의 %	43.5	35.4	9.4	7.0	4.7	100.0

에서 이 두 요인은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의복단서 및 지각자의 성별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관련변인인 지각자의 성별과 의복단서인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가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5가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캐주얼웨어의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는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인상형성에 미치는 이들 단서들의 영향력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효과를 볼 때,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5개 요인 모두 상의색상, 하의색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의복단서가 하의형태일 때는 주의집중성 요인과 활동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CA 분석에서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에 따른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흰색은 검정보다 긍정적인 주의집중성, 안정성, 활동성 요인으로 지각되었다. 상의색상에서는 난색이 한색보다 긍정적인 외모평가,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요인으로 지각된 것으로 보아 고명도의 색이 저명도의 색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하의형태가 스커트일 때 주의를 더 집중시키고 활력을 주며 친숙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관찰자 변인인 성별을 보면 외모평가 차원에서는 남자

<표 4> 상·하의 색상, 하의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효과	상의색상(A)		3.57	4.18***	5.18	6.56***	12.84	16.29***	4.74	5.91***	25.46	35.98***	
	하의색상(B)		4.51	5.27*	6.48	8.22**	10.02	12.71***	41.54	51.68***	66.40	93.84***	
	하의형태(C)		2.92	3.42	38.60	48.91***	0.68	0.87	0.66	0.83	15.79	22.33***	
	지각자성별(D)		5.92	6.92**	1.49	1.89	0.82	1.05	2.05	2.56	9.84	13.91***	
2원 상호작용 효과	AxB		2.27	2.66*	1.34	1.70	1.13	1.44	2.74	3.42**	3.73	5.28***	
	AxC		0.92	1.08	3.98	5.05***	2.07	2.64*	0.38	0.47	1.94	2.75**	
	AxD		1.03	1.21	0.87	1.11	0.54	0.69	1.03	1.28	0.88	1.25	
	BxC		14.99	17.51***	0.10	0.14	1.84	2.33	3.11	3.88*	0.00	0.01	
	BxD		2.93	3.43	0.00	0.01	0.25	0.32	2.39	2.98	2.18	3.08	
	CxD		0.37	0.44	1.11	1.42	1.28	1.63	0.04	0.05	0.21	0.30	
3원 상호작용 효과	AxBxC		0.58	0.68	5.98	7.58***	2.96	3.75***	1.44	1.80	2.52	3.56***	
	AxBxD		0.90	1.05	1.35	1.71	1.51	1.92	0.72	0.90	0.32	0.46	
	AxCxD		1.55	1.82	0.72	0.92	0.87	1.11	0.06	0.08	0.61	0.87	
	BxCxD		0.90	1.05	1.35	1.71	1.51	1.92	0.72	0.90	0.32	0.46	
4원 상호작용 효과	AxBxCxD		1.14	1.34	1.33	1.69	0.82	1.05	1.01	1.26	0.08	0.13	
MCA	상의 색상	변인	수준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빨강		.16		-.16		.71		.10		.12	
		주황		.10		-.25		-.11		-.15		.62	
		노랑		-.09		-.02		-.13		.18		.74	
		초록		-.11		-.12		-.08		.04		.22	
		파랑		-.21		-.10		.04		-.02		-.31	
		보라		-.23		-.06		.34		-.08		-.25	
		흰색		.08		.44		-.44		.34		.14	
	검정		.32	.19	.32	.23	-.34	.36	-.42	.22	-.88	.47	
	하의색상	흰색		-.08		.09		-.11		.25		.30	
		검정색		.08	.08	-.09	.09	.11	.11	-.24	.25	-.30	.29
	하의형태	팬츠		-.06		-.23		-.03		.03		-.13	
스커트			.06	.06	.24	.23	.03	.03	-.03	.03	.14	.13	
지각자 성별	여자		.09		.05		-.03		.05		-.12		
	남자		-.09	.09	-.05	.05	.03	.03	-.05	.05	.12	.11	
Multiple R			.24		.35		.38		.34		.58		
Multiple R ²			.06		.12		.14		.12		.33		

* : P < .05, ** : P < .01, ***P < .001.

보다 여자가, 활동성 차원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차원에서는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 형성 평가에서 남·여 즉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변량 분석 결과에서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모평가, 안정성 요인에서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조합, 하의색상과 하의형태의 조합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의색상과 하의형태의 조합이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조합보다 외모평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의색상과 하의형태의 조합은 주의집중성, 깔끔함, 활동성 차원

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주의집중성 요인에서 이들 조합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활동성 차원에서는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조합이 상의색상과 하의형태의 조합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세 독립변인인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 사이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주의집중성, 깔끔함, 활동성 요인에서 나타나고, 외모평가, 안정성 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가 각각 독립된 정보로서 외모평가나 안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 변인이 상호 작용하여 통합되는 지각의 중간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단서 즉 상·하의색상과 하의형태인 3가지 변

인들이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5가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4~11)으로 나타내었다.

1) 외모평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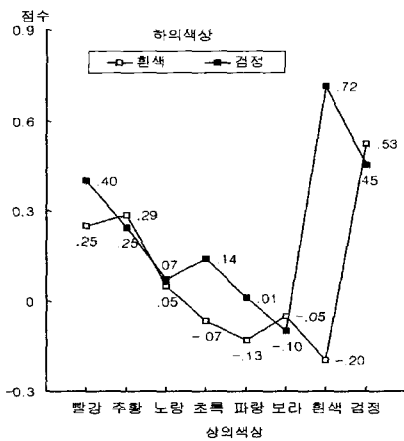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하의색상에 상관없이 빨강, 주황, 노랑인 난색과 조합했을 때 멋있고 세련되고 어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색상의 경우 흰색보다 검정색 하의와의 조합을 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초록, 파랑색과 같은 한색과 하의색상을 조합할 경우는 검정색 하의와는 긍정적으로 인지되어 멋있고 보기 좋고 세련된 것으로, 흰색 하의와는 부정적으로 인지되어 멋없고 촌스럽고 야하고 경박한 것으로 평가하여 하의색상에 따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상·하의색상을 동색인 무채색으로 조합할 경우 하의색상이 검정일 때 상의색상에 따른 인상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하의색상이 흰색일 때는 상의색상에 따른 외모평가에서 크게 차이를 보여 다소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하의색상이 검정색일 경우 상의색상을 흰색이나 검정 어느 색을 조합하더라도 매력있고 보기 좋고, 멋있고 세련되고 어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상·하의 색상이 무채색인 경우에는 상하동색보다 상하배색이 더 긍정적인 외모평가 요인으로 지각되어 한복에서 상하동색이 상하배색보다 더 멋있다고 한 이혜숙, 김재숙(1998(a))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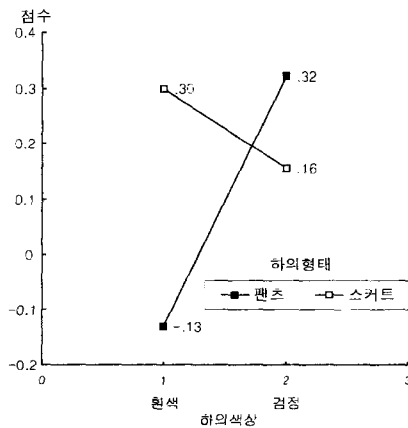
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복단서 즉 배색 유형이나 의복유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상·하의가 흰색인 상하동색을 제외한 무채색끼리의 조합이 유채색과 무채색을 조합한 것 보다 더 보기 좋고, 세련되고 어려 보이며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외모평가 차원에 영향을 주는 하의색상과 하의형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하의형태가 스커트일 경우 하의색상에 따른 인상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팬츠일 경우에는 하의색상에 따라 외모에 대한 평가가 크게 차이를 보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즉 하의형태가 스커트일 경우에는 하의색상이 무채색이면 멋있고 세련되고 보기 좋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흰색 하의가 검정색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하의형태가 팬츠일 경우, 하의색상이 검정색일 때는 외모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하의색상이 흰색일 때는 보다 멋없고 촌스럽고 어색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하의형태가 팬츠일 때는 검정색을, 하의형태가 스커트일 때는 흰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색 스커트정장이 흰색보다 더 세련되고 좋은 인상을, 흰색 팬츠·블라우스가 검정색 보다 더 멋있고 세련되었다는 이주현, 조금호(1995(a))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스커트 정장이나 팬츠·블라우스의 색상이 상·하의에서 동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하의의 색상을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배색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서가 서로



<그림 2> 외모평가요인에 미치는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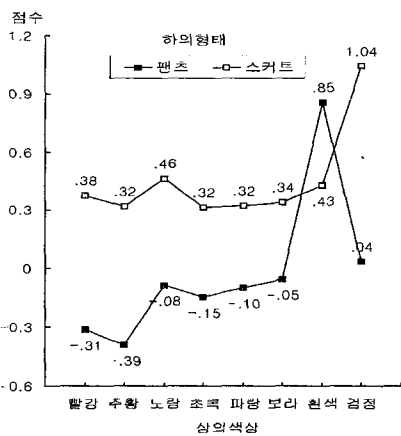
<그림 3> 외모평가 요인에 미치는 하의형태와 하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다른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주의집중성 요인

주의집중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의색상과 하의형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유채색 및 무채색으로 된 상의색상과 하의형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하의형태가 스커트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더 강렬하고 눈에 잘 띄고 부드럽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유채색 상의 중 노랑색 상의가 가장 주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의형태가 팬츠일 경우는 상의가 같은 유채색이라도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주황, 빨강색 상의와 팬츠 스타일은 이러한 인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채색의 상의색상에 따라 하의형태간에는 주의집중성 요인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만 상의색상이 무채색인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상의색상이 흰색인 경우, 스커트 보다 팬츠일 때, 상의색상이 검정색인 경우에는 팬츠보다 스커트를 착용할 때 보다 더 강렬하고 눈에 잘 띄고 부드럽고 정숙한 것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하의형태가 스커트일 때 상의색상은 검정, 노랑, 흰색, 빨강의 순으로 나타나 무릎길이 스커트인 검정색 수트가 빨강색 수트 보다 더 정숙하다고 한 강혜원, 고애란(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체로 스커트가 팬츠보다 더 눈에 잘 띄는 것은 다리 노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리노출 변인이 외향적이며 주의를 끄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선행연구자



<그림 4> 주의집중성 요인에 미치는 하의형태와 상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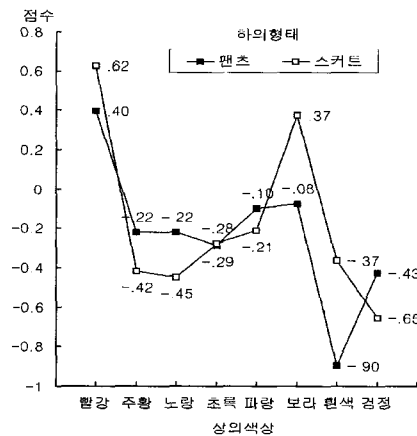
(강혜원, 고애란, 1992; Gibbins & Coney, 1981)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하가 동색인 빨강색 수트와 빨강색 팬츠·블라우스가 파랑, 노랑, 흰색, 검정색 보다 더 주의집중적이라고 한 이주현(1995(a))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자가 사용한 의복 단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깔끔함 요인

깔끔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하의형태와 상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하의형태와 상의색상간의 상호작용에서 상의색상에 따라 하의형태간에는 깔끔함 요인에 대한 인상이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았다.

유채색의 상의 중 난색인 빨강, 주황, 노랑 중에서 빨강색 상의는 하의형태에 관계없이 깔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같은 난색인 주황, 노랑과는 하의형태에 관계없이 깔끔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깔끔함 차원에는 하의형태보다 상의색상의 영향이 크고 같은 난색의 경우도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색과 하의형태간의 상호작용에서 보면 초록, 파랑과는 달리 보라에서는 스커트인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보라색 상의와 스커트는 깔끔한 것으로, 팬츠와는 깔끔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상의색상이 무채색인 경우에는 팬츠, 스커트 모두 깔끔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흰색상의는 하의형태가 팬츠일 때, 검정색 상의는 스커트일 때 부정적 이미지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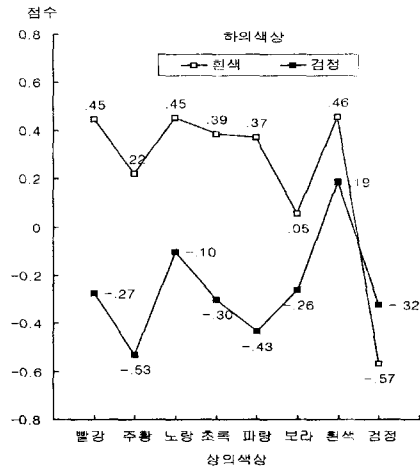
<그림 5> 깔끔함 요인에 미치는 하의형태와 상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전체적으로 보면 하의형태에 관계없이 상의색상이 빨강일 때, 그 다음이 보라색 상의와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깔끔하고 차분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흰색상의와 팬츠를 착용했을 때 가장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정색 의복착용자는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는 이주현(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4) 안정성 요인

안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하의형태와 하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하의형태에 상관없이 하의색상이 흰색인 경우에는 점잖고, 안정되고 자제력이 있고, 중후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하의색상이 검정색일 경우에는 발랄하고 우울하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안정성 차원에는 하의형태보다 하의색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7>에서 보면 먼저 유채색인 경우 상의색상에 따라 하의색상 간에는 안정성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였다. 한·난색에 관계없이 유채색 상의는 모두 하의색상에 따라 인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흰색하의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주황, 보라의 모든 상의색상과 배색될 때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흰색하의가 빨강이나 노랑의 난색 상의와 배색될 때 매우 안정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무채색 상의와 하의색상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하의색상에 관계없이 상의색상이 흰색일 경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검정



<그림 7> 안정성요인에 미치는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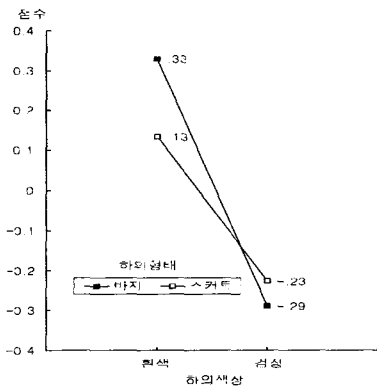
일 경우 낮은 것으로 지각되어 하의색상은 상의색상에 따라 상반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하의를 동일한 무채색으로 조합할 경우 안정성 차원에는 하의색상 보다 상의색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의색상에 관계없이 얼굴 가까이 있는 상의색상의 영향이 커서 명도가 낮아 어둡고 무거운 검정색 보다 명도가 높아 밝고 가벼운 흰색이 안정성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활동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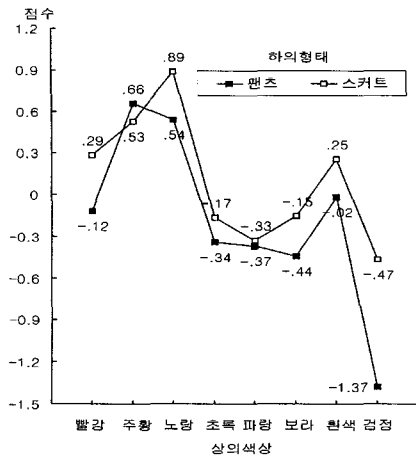
활동성요인에 영향을 주는 하의형태와 상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색상이 주황색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상의색상에 따라 하의형태 간에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였다.

상의색상이 난색인 경우 빨강색을 제외한 나머지 주황, 노랑색 상의들은 하의형태에 관계없이 활력을 주며 동적인 인상을, 상의색상이 흰색인 경우에는 하의형태에 관계없이 가라앉게 하고 친숙하지 않으며 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난색이 가지는 활발하고 경쾌한 이미지와 흰색이 가지는 차분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상의색상의 이미지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의색상이 무채색인 경우에도 역시 팬츠보다 스커트에서 높게 지각되어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였다. 무채색 상의인 검정색의 경우 하의형태에 상관없이 정적이고 가라앉는 인상을 주고 특히 이러한 이미지



<그림 6> 안정성요인에 미치는 하의형태와 하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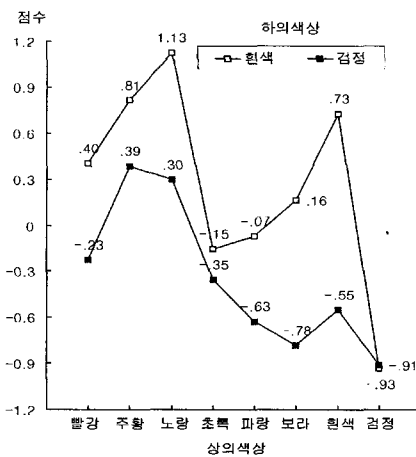


<그림 8> 활동성요인에 미치는 하의형태와 상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는 팬츠에서 강하게 지각되어 검정색 팬츠·블라우스가 가장 비활동적이며 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이주현, 강혜원, 1995(b))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활동성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의색상과 하의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색상에 따라 하의색상간에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여 흰색 하의가 검정색 하의보다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상·하의 색상 즉 유채색 상의와 무채색 하의를 조합할 경우 상의가 난색인 경우, 흰색일 때 보다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흰색 하의인 경우에는



<그림 9> 활동성요인에 미치는 하의색상과 상의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상의색상이 노랑색일 때, 검정색 하의인 경우에는 상의색상이 주황색일 때 가장 활력을 주며 동적인 인상을 주어 주황과 노랑이 가지는 활발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하의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도 크게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의색상이 흰색인 초록, 파랑, 보라색을 무채색과 조합할 경우 보라색을 제외한 초록, 파랑은 하의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상의색상이 보라색인 경우는 하의색상이 흰색일 때 활동적으로, 검정색일 때는 흰색 중에 가장 비활동적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상의색상을 검정으로 할 경우 하의색상간의 활동성 이미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하의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반면에 상의색상을 흰색으로 할 경우 하의색상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하의가 검정색일 때 비활동적이고 하의가 흰색일 때 즉 상·하가 흰색으로 동색일 때 매우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V.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상형성이론을 적용하여 캐주얼웨어 착용시 색상의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의복단서로 사용된 상의색상(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흰색, 검정), 하의색상(흰색, 검정), 그리고 하의형태(팬츠, 스커트)에 대한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은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6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의복 단서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의색상과 하의색상, 하의형태에 따른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을 요인 분석한 결과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차원은 외모평가요인, 주의집중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상의색상은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의 모든 차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깔끔함 차원에서 지배적인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하의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외모평가, 안정성,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의색상은 5가지 차원 즉 외모평가, 주의집중성, 깔끔함, 안정성, 활동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 활동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상의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외모평가, 안정성, 활동성 차원에, 하의형태와의 상호작용에서

는 외모평가, 안정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4. 하의형태는 주의집중성,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의집중성 차원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서로 나타난 반면 외모평가, 깔끔함, 안정성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의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외모평가, 안정성, 깔끔함 차원에 하의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외모평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각자 성별은 외모평가, 활동성 차원의 인상에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떤 변인과의 상호작용한 인상차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에서 상의색상, 하의색상, 하의형태는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정보로 또는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하의형태보다 상·하의 색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된 정보로 작용되지 않았던 단서들도 지각단계에서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상형성시 주변특질과 중심특질이 있음을 의미하고 각각의 정보들이 조직화되어 전반적으로 형성된 인상은 각 정보를 모두 합한 것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형태적 접근이론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독립변인의 영향과 이들 조합상태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므로 상·하의 색상이나 하의형태는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임은 물론 이들 조합 특히, 상·하 배색에 의해 다양한 인상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형성 단서로 상·하의 색상 및 하의형태를 사용하였고 특히 상·하의 색상 즉 유채색과 무채색, 무채색과 무채색의 색조합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의복의 재질이나 무늬, 유채색간의 배색이나 톤 변화, 상황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자극물은 그림 자극물을 사용하였고 의복형태, 배경, 등이 통제되었다. 그리고 자극물 조작시 32개의 자극물을 편의상 16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여기서 오는 오차변량을 제거하지 못했고, 조사가 강의실에서 이루어져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상형성에 대한 점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9).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39-40, 43, 50-51, 57-71.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강혜원, 고애란. (1992).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3), 181-195.
- 김희정. (1997).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195-209.
- 남미우. (1990).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이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1177-1186.
- 오희선, 박화순. (1994). *의상디자인*. 경춘사.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인자. (2001). *의상심리*. 교문사.
- 이인자, 송선옥. (1982). 의복과 인물이 첫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27-38.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조근호. (1995(a)).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I):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주현, 강혜원. (1995(b)).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II):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현화, 박찬부. (1997(a)). 의복단서, 지각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호, 313-336.
- 이현화, 박찬부. (1998(b)). 의복단서, 지각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복식* 37호, 119-132.
- 이혜숙, 김재숙. (1998(a)).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I)-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혜숙, 김재숙. (1998(b)).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II)-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52-1059.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渡辺藤子, 川本榮子, 中川早苗. (1991). 服装におけるイメージとの関連について. *日本家庭學會誌*, 42(5), 456-566.
- 石塚純子, 加藤雪枝, 檜山藤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装イメージ. *日本家庭學會誌*, 38(4), 321-332.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irren, F. (1989).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 Gibbins, K., & Coney, J. R.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720-722.